한국 여자 컴파운드 결승 진출…남자는 동메달 획득

광주 양궁월드컵

인도 꺾은 여자양궁 21일 에스토니아와 결승전
남자는 4강서 인도에 '발목'…전 종목 석권 불발
최미선·김제덕 리커브 예선서 남녀 개인전 1위

한국 여자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결승에 진출했다.

김윤희·오유현(이상 현대모비스)·송윤수(전북도청)가 팀을 이룬 한국은 1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 2022 양궁월드컵 여자 컴파운드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인도를 230-228로 꺾고 결승에 올라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

한국 여자 컴파운드는 21일 오전 10시 광주여대에서 유럽 강호 에스토니아와 금메달을 놓고 시위를 당긴다.

16강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한국 여자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은 8강에서 이탈리아를 228-223 꺾고 준결승전에 올랐다.

남자 컴파운드는 이날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양궁의 첫 메달이다. 다만,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이 금메달 사냥에는 실패하면서 기대했던 10개 전 종목 석권은 불발됐다.

최용희·김종호(이상 현대제철)·양재원(울산남구청)이 출전한 한국은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후 8강전에서 대만을 233- 232, 1점차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한국은 준결승전에서 복병 인도와 4엔드까지 똑같은 233점을 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으나 26-29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3, 4위 결정전에서 덴마크를 상대로 238-229로 승리,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남녀 리커브 예선은 태극궁사들의 독무대였다.

최미선(순천시청·665점)과 김제덕(경북일고·685점)이 남녀 개인전 1위에 올랐다.

김제덕·김우진(청주시청)·이우석(코오롱)이 출전한 남자단체전도 237점을 합작하며 1위를 차지했고, 안산(광주여대)·최미선·이가현(대전시체육회)가 팀을 이룬 여자 단체도 1944점을 획득하며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김제덕과 최미선은 혼성전에서 1340점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 16강에 올랐다.

한편, 남자부 개인 예선전에서 김우진(청주시청·680점)이 2위, 이우석(672점)이 5위, 오진혁(현대제철·661점)이 16위를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이가현(649점)이 3위, 안산(640점)이 8위, 강채영(636점)이 1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대회 3일째인 19일에는 리커브 남녀 단체전과 컴파운드 개인전이 진행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금메달 시동 거는 여자 양궁 1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2 광주 양궁 월드컵대회 리커브 예선에서 한국의 안산과 강채영을 비롯한 각국 선수들이 활을 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 2022 현대 월드컵 컴파운드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남자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의 김종호(왼쪽ㅏ부터), 양재원,최용희. /연합뉴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국제대회 금 4 등 메달 11개

슬로베니아 오픈 탁구대회
서수연 등 선수 전원 맹활약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팀이 '2022년 슬로베니아 오픈 국제 탁구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포함해 모두 11개 메달을 쓸어담았다.

18일 광주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팀이 최근 슬로베니아 라스코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탁구 최강팀의 면모를 재확인했다.

여자단식과 여자복식에 출전한 서수연이 2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남자단식 김영건과 혼합복식 김정길이 금메달을 수확했다. 서수연은 박진철과 팀을 이룬 혼합복식에서는 은메달을 합작했다.

남기원은 남자단식에서, 박진철은 남자단식과 남자복식에서, 김영건과 김정길은 남자복식에서, 김성옥은 여자단식과 여자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팀은 2024년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포인트 확보를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국제탁구연맹 주최로 열린 랭킹 포인트 대회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달 나주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입상에 이어 이번 포인트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에 청신호를 켰다고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전했다.

조재관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감독은 "국가대표 선발전 세부 등급별 우승에 이어 이번 슬로베니아 오픈대회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광주시, 광주장애인체육회에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도록 뒷바라지 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슬로베니아 오픈 국제 탁구대회'에서 메달 11개를 수확한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팀.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전남도체육대회 내일 순천서 개막

23일까지 4일간 6700명 참여

전남도민의 체육 한마당잔치인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생태수도' 순천시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61회째를 맞은 전라남도체육대회는 "가자~순천으로! 즐기자~ 전남체전!"이라는 주제로 20일~23일까지 4일 동안 순천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에서 670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경기장 28곳에서 육상, 축구 등 22개 정식종목과 게이트볼, 족구 등 2개 전시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순천시는 지난 2001년 제40회 대회 개최 이후 21년만에 전라남도체육대회를 개최한다.

20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식전행사와 개회식 후 축하콘서트에는 갈라쇼 '위대한 쇼맨' 공연을 비롯 SF9 아이돌과 송가인, 장민호 등 유명가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이번 체전에는 이색 선수들이 눈길을 끈다.

부부 선수는 여수시 검도의 윤정훈, 원유미 등 6커플이 참가한다. 순천시 윤경환·동환 쌍둥이와 담양군 김은성·은혜 쌍둥이 남매를 비롯 형제자매 13팀이 출전한다.

광양시 육상 선수로 나서는 김동욱(54)씨는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1회 연속으로 출전하는 '최장기간 출전선수'다.

나주시 소프트테니스 김재곤(86)은 최고령 참가자, 함평군 복싱 황상하(14)는 최연소 출전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최기동 전남도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지난 61년 동안 전남체육 발전을 견인한 도내 최대 체육행사로 도민의 긍지를 높여 주었다"며 "선수, 체육인, 도민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늘려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PGA챔피언십 앞둔 우즈 "더 강해졌고, 우승 가능"

PGA챔피언십 개막을 앞두고 18일 연습라운딩을 하는 우즈. /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에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조던 스피스(미국)와 함께 1, 2라운드를 진행한다.

19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컨트리클럽(파70·7556야드)에서 개막하는 PGA 챔피언십의 1, 2라운드 조 편성을 보면 우즈는 매킬로이, 스피스와 함께 한국시간으로 19일 밤 10시 11분 10번 홀을 출발한다.

이 대회는 우즈가 지난해 2월 교통사고 이후 두 번째로 출전하는 대회다.

교통사고 이후 처음 출전한 공식 대회였던 4월 마스터스에서는 47위를 기록했다.

우즈는 현지 날짜로 개막을 이틀 앞둔 18일 진행된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워낙 가파른 코스를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전이었던 마스터스가 열린 오거스타 내셔널이 경사가 심한 편이어서 이번 대회는 그보다는 수월할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2월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던 우즈로서는 코스 경사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는 "공을 치는 스윙은 가능한데, 걷는 것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즈는 "4월 마스터스 종료 후 쉰 날은 하루밖에 없었다"며 "마스터스에 비해 더 강해졌고, 이번 대회에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우즈는 "사실 중요한 것은 몸 상태보다 마음가짐"이라며 "(2008년 US오픈에서는) 무릎 부상을 안고도 우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 2
2관	범죄도시 2
3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4관	범죄도시 2
5관	범죄도시 2
6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9관	범죄도시 2, 잭 인 더 박스
7관 씨네커플	아치의 노래,정태춘, 서울괴담,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8관 씨네커플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배드 가이즈, 서울괴담,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Ⅲ
Brahms's
일시 : 2022.06.03.(금)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524-5086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5.03.(화)~31.(화)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